

#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심혜숙\*, 신건호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 The Effects of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Participa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Value of Children

Shim Hye-Sook\*, Shin Keonh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만3-5세 자녀를 둔 아버지 247명을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 자녀가치, 양육태도, 양육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중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자녀가치 중 정서적 자녀가치가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버지의 긍정적 자녀가치 형성을 위한 다각적 고찰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공동양육자로서의 아버지에게 대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원가족 경험, 자녀가치, 긍정적 자녀가치, 양육태도, 양육참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participation around mediating effects of value of children.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family-of-origin experienc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attitude, and degree of parenting participation on 247 fathers of 3~5 year old children.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21 program on the collected data.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participation among family-of-origin experience and value of children. This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by stage to identify mediating effects.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 makes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participation, and emotional value of children among value of children mediates their relationship.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multilateral consideration and systematic system for formation of positive value of children are needed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follow-up study on fathers as a coparent.

**Key Words** : Family-of-Origin experience, Value of childre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participation

---

\*Corresponding Author : Hye-Sook, Shim(heasuk1024@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0, 2017

Revised December 22,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8

## 1. 서론

Ross D. Parke[1]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질적으로 다르며 아버지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몫이었다. 가정 내 아버지는 자녀를 생산하는 생물학적 존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부양자였으며,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돕는 조력자 내지는 방관자였다[2].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전통적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을 갖는 가족 문화로 변화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 역시 어머니를 돕는 양육의 지원자가 아닌 양육의 주체자, 즉 적극적인 참여자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3,4].

아버지 역할에 대한 담론들은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 방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초기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성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연구의 경향은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참여가 자녀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변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4-9]. 이러한 연구 경향의 변화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녀양육에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놀이하는 시간이 길수록 영아기 자녀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 발달이 촉진되며 신체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성격형성과 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주도학습과 자아통제력을 높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였다[11,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자녀양육에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와 더불어 양육의 주체자로 참여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13,14].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버지

들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지각하고 있으나, 자신의 역할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아버지들은 처음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의 부족함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신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모델로 삼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3,15].

‘가르침은 배움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이 배운 것이나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행동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역시 어느 한 시점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어린 시절의 양육경험, 즉 원가족에서 경험한 양육행동을 기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원가족 양육경험이 권위적이고 지배적일 때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권위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고[16], 원가족의 긍정적인 경험은 합리적이고 친밀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17]. 아버지들은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혹은 그와는 전혀 상반되는 보상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15,18],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원가족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한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시작이 된 가족을 말한다[18]. 특히 가족 간의 일체감과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사회의 가족은 동질의 정서적, 심리적 경험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념과 태도 등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시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를 정신적 모델로 삼아 자신의 양육행동을 결정하게 된다[15,20]. 이처럼 원가족 경험은 원가족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아들에게로 세대 간 학습되고 전이된다[16,21-23].

그렇다면 원가족 경험의 범주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원가족 경험의 범주를 최현미[20]의 연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최현미[20]는 기존 원가족 경험을 측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한국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원가족 경험 측정 요인을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확대 가족내의 독립성, 공동체

의식 및 가족의 공평성 등 8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 건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요인이 원가족 경험을 지배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가족 경험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원가족 건강성을 원가족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24-26] 본 연구에서도 원가족 건강성 요인을 원가족 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세대 간 전이되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인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가족 경험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가족의 긍정적인 경험은 어머니에게는 양육효능감으로, 아버지에게는 양육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원가족 경험을 통한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더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7,22,26-28]. 즉 원가족의 긍정적인 경험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하며 양육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부모의 행동양식이다[29,30].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는 온정과 수용, 허용과 방임, 거부와 제재 등으로 구분되거나, 권위적이거나 자상한 양육태도, 수동적 태도와 방임적 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15,3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2,33].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유아의 기질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36].

양육참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든 행위이다[2]. 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으로, 자녀와 함께 직접적으로 놀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또는 교육적 지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양육참여는 어머니를 돕거나 부부간의 공동양

육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자녀에 대하여 더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27,37,38]. 이는 양육참여와 양육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아버지가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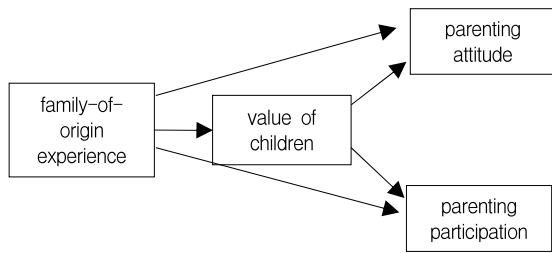
또한 다수의 학자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녀가치를 들고 있다[7-9]. 자녀가치는 자녀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 기준에 의해 바라보는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과 부모로 갖게 되는 책임감과 더불어 자녀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을 말한다[40]. 이러한 자녀가치 역시 원가족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41]. 자녀가치에 대한 세대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연구한 권용은[42] 역시 자녀가치가 세대 간 전이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지원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해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애정적인 태도를 보인다[43]. 양육행동이 원가족 경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에 주의한다면 세대 간 전이되는 자녀가치의 영향력에도 주목하여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가치관 내에서 자녀는 대를 잇는 수단적인 의미나 자신의 노후를 기대하는 도구적인 의미가 강하였다. 이러한 가치관 내에서는 자녀 양육에 권위주의적이거나 통제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녀에 대한 관점은 삶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 자신과 타인들을 연결하여 주는 존재이면서 힘과 보람이 되는 존재로 변화하였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행동 역시 변화하였다.

본 연구의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양육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양육참여의 각 변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단일관계로 연구되어져 왔고 인과관계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가족 경험이 자녀가치를 매개로 하여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양육참여간

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포함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문제와 가설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가치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4곳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총 294명이었으나 이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7명을 제외하고 247명을 최종 연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은 만3세가 45명(18.2%), 만4세가 66명(26.7%), 만5세가 136명(55.1%)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68%)이 가장 많았다. 가족의 형태는 90.3%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으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40.1%,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는 59.9%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
Age	21-30	1	.4
	31-40	113	45.7
	41-50	132	53.4
	>51	1	.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9	7.7
	Associate	30	12.1
	Bachelor	135	54.7
	Master	63	25.5
Job	Professional	53	21.5
	Mangement	104	42.1
	Office work	28	11.3
	production worker	5	2.0
	Manual labor	2	.8
	Engineer	15	6.1
	Service etc	8	3.2
Household income (10,000won)	200<	5	2.0
	200-300	13	5.3
	300-400	51	20.6
	400-500	49	19.8
Working couple	<500	129	52.2
	Yes	99	40.1
Number of Children	No	148	59.9
	1	52	21.1
Family type	2	168	68.0
	3	25	10.1
	4	2	.8
	A nuclear family	223	90.3
Birth Order	Extended family	19	7.7
	Dispersed family	4	1.6
	etc	1	.4
Family-of-Origin type	First	96	38.9
	Second	83	33.6
	Third	34	13.8
	Fourth or more	34	13.8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of-origin	A nuclear family	177	71.7
	Extended family	62	25.1
	A single-parent family	4	1.6
	Dispersed family	4	1.6
Family-of-Orig n type	Low	47	19.0
	Average	147	59.5
	Hihg	53	21.5

###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자녀가치, 양육태도, 양육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자녀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 맞벌이 유무, 가족형태를 살펴보고, 원가족 변인으로는 출생순위, 가족형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 2.2.1 원가족 경험(FOE)

원가족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Hovestadt 등[19]이 제작한 원가족 척도(Family of Origin Scale: FOS)를 기초로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최현미[20]의 원가족 척도(FOS-55)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의 요인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4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현미[20] 연구의 Cronbach  $\alpha$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로 내적 합치도를 추정한 결과 Cronbach  $\alpha$ 는 .935이었다.

### 2.2.2 자녀가치(EVC)

자녀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VOC(1970)의 연구문항과 Family and Fertility Survey(FFS)문항을 추가한 권용은[39]의 긍정적 자녀가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녀가치의 Cronbach  $\alpha$ 는 대부분 .70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녀가치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가치(8문항), 도구적 가치(7문항), 사회적 가치(3문항)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정서적 가치 4문항, 도구적 가치 4문항과 신뢰도계수가 낮은 사회적 가치 3문항을 제외한 정서적 가치 4문항과 도구적 가치 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로 추정된 자녀가치의 내적합치도를 추정한 결과 전체가치의 Cronbach  $\alpha$ 는 .770, 정서적 가치는 .866, 도구적 가치는 .706이었다.

### 2.2.3 양육태도(PAT)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숙[44]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강지수[45]의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낮았던 하위요인인 ‘일관성 있는 규제’(Cronbach's  $\alpha = .56$ )를 제외하고 46문항을 사용한 조성희[46]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합리적인 지도(9문항), 애정(9문항), 성취(6문항), 적극적인 참여(5문항), 권위주의적 통제(8문항), 과보호(9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지도 4문항, 애정 7문항, 성취 5문항, 적극적인 참여 5문항, 권위주의적 통제 3문항, 과보호 4문항 등 총 2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료로 추정된 양육태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는 .802이었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  $\alpha$ 는 합리적인 지도가 .820, 애정이 .882, 성취가 .732, 적극적인 참여가

.785, 권위주의적 통제가 .627, 과보호가 .689이었다.

### 2.2.4 양육참여(PAP)

양육참여 척도는 기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들을 기초로 양육참여 척도(FOS)를 개발한 이미현[2]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 는 .906이었다. 하위요인으로는 놀이문화지원(4문항), 사회정서지원(4문항), 교육지원(3문항), 공동양육(3문항), 자기성장(5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참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놀이문화지원 4문항, 사회정서지원 3문항, 교육지원 3문항, 공동양육 2문항, 자기성장 5문항 등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로 추정된 양육참여의 내적합치도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04이었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  $\alpha$ 는 놀이문화지원이 .839, 사회정서지원이 .704, 교육지원이 .817, 공동양육이 .692, 자기성장이 .849이었다.

##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2015년 9~10월 설문지 문항을 구성한 후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4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연구 협조를 의뢰하여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어 아버지가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한 설문지는 다시 유아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회수한 후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원가족 경험이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47]의 4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 양육참여와의 관계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 양육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가족 경험은 자녀가치 중 도구적 자녀가치를 제외한 정서적 자녀가치( $r=.139, p<.05$ ), 양육태도( $r=.366, p<.01$ ), 양육참여( $r=.264, p<.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적 자녀가치는 도구적 자녀가치( $r=-.082, p<.05$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양육태도( $r=.321, p<.01$ ), 양육참여( $r=.299, p<.01$ )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태도는 양육참여( $r=.614, p<.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value of children			
			1	2	3	4
1	3.6049	.66551	1			
2	4.1407	.68164	.139*	1		
3	1.6154	.64677	-.057	-.082*	1	
4	3.6925	.42659	.366**	.321**	-.124	1
5	3.6030	.51914	.264**	.299**	.020	.614**

1:family-of-origin experiences, 2:emotional value of children, 3: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4:parenting attitude, 5: parenting participation  
\* $P<.05$ , \*\* $P<.01$

#### 3.2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Table 3>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participat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beta$	t	p
family-of-origin	constant	3.013	.119		25.397	.000
	parenting attitude	.199	.032	.366	6.160	.000
	R=.366, R <sup>2</sup> =.134, Adjusted R <sup>2</sup> =.131, F=37.942, p=.000					
	constant	2.861	.176		16.238	.000
	parenting participation	.206	.048	.264	4.280	.000
R=.264, R <sup>2</sup> =.070, Adjusted R <sup>2</sup> =.066, F=18.317, p=.000						

가설 1은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결과 양육태도의 t값은 6.160( $p=.000$ ), 양육참여의 t값은 4.280(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경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양육참여 행동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 3.3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 3.3.1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3단계에 걸쳐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원가족 경험이 매개변인인 정서적 자녀가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139, p<.05$ ), 2단계에서는 원가족 경험이 종속변인인 양육태도( $\beta=.366, p<.01$ )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회귀분석에서도 자녀가치가 매개변인으로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75, p<.01$ ). 2단계와 3단계의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2단계에서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beta=.366, p<.01$ )이 3단계에 분석결과( $\beta=.328, p<.01$ )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 정서적 자녀가치는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1.993(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the value of childr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and parenting attitude

step	B	S.E	$\beta$	R <sup>2</sup>	F
step1 family-of-origi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143	.065	.139*	.019	4.846
step2 family-of-origin→ parenting attitude	.199	.032	.366**	.134	37.942
step3	.178	.031	.328**	.209	32.141

family-of-origin→ parenting participatio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attitude	.146	.031	.275**

\*p<0.05, \*\*p<0.01

### 3.3.2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3단계에 걸쳐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원가족 경험이 매개변인인 정서적 자녀가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139, p<.05$ ), 2단계에서는 원가족 경험이 종속변인인 양육참여( $\beta=.264, p<.01$ )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회귀분석에서도 자녀가치가 매개변인으로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68, p<.01$ ). 2단계와 3단계의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2단계에서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beta=.264, p<.01$ )이 3단계에 분석결과( $\beta=.226, p<.01$ )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 정서적 자녀가치는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1.970(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the value of childr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and parenting participation

step	B	S.E	$\beta$	R <sup>2</sup>	F
step1 family-of-origi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143	.065	.139*	.019	4.846
step2 family-of-origin→ parenting participation	.206	.048	.264**	.070	18.317
step3 family-of-origin→ parenting participatio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participation	.177	.047	.226**	.140	19.845

\*p<0.05, \*\*p<0.0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자녀가치의 매개효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증가되고, 양육에 참여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17,22,4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주혜[26]와 정미라, 이방실, 박수경[49]도 아버지가 원가족 경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 합리적이고 애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양육참여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녀가치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자녀가치가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적 자녀가치는 원가족 경험과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관련한 자녀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원가족 경험이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거나[50],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27], 자녀가치가 양육참여행동과 더불어 자녀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10] 등 영향을 주는 변인이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원가족 경험이 자녀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녀가치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가치가 매개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고 연구결과 정서적 자녀가치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자녀가치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며,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본

연구는 정서적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원가족 경험과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 간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원가족 경험이 자녀가치, 양육태도,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원가족 경험과 더불어 정서적 자녀가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역할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성찰할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대부분 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현재 아버지의 양육행동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나무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잎만을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원가족 경험과 경험을 통하여 내면화된 자녀가치에 대하여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양식의 기원을 살펴보아 현재의 행동양식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아버지 교육의 기초 연구자료로 본 연구가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경기도 지역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적 제한점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행동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가 원가족의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를 자기보고형태로 응답하였기에 편견으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를 보고하게 된다면 편견으로 인한 오류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부부간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의 상이성을 고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R. D. Parke(1996). "Fatherhood. A translation by Seong-bong Kim, Seoul: Samtoh", 2005.
- [2] M. H.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Scales for Fathers having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2014.
- [3] K. S. Kim, " Becoming a Father of a Father with a Young Child", Ph.D.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2015.
- [4] S. J. Hur, "An Analysis on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Father's Role Perceptions and Involvement Behavi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1, No. 5, pp. 131-152, 1993.
- [5] Y. S. Kim, "A research on the changing roles of father", Journal of Jeonju Junior College. Vol. 13, pp. 297-320, 1993.
- [6] G. J. Park, Y. J. Kim, M. W. Suh, M. J. Yun, J. S. Lee, K. O. Cho, "Parent education for the role in early childhood", Seoul: Yanseowon, 2012.
- [7] H. J. Yoon, Y. R. Hur,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n Journals on the Role of Fathers with Young Children: Research Papers from 2000 to Present ",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5, No. 4, pp. 449-460, 2014.
- [8] J. H. Jeon, J. Y. Park, "Influence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Parenting Efficacy",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4, No. 4, pp. 127-150, 2010.
- [9] D. W. Chung. "A Study on Fathers' Self-esteem and Fathers' Parenting Attitud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8, No. 4, pp.353-370, 2014.
- [10] H. J. Jeon, S. K. Cho, M. J. Kim and H. J. Choi, "Belief in the value of children's father, grow, influence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infants development characteristics change fact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678-2688, 2014.
- [11] S. H. Moon, "Structural Modeling of an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6, pp. 11-21, 2013.
- [12] H. J. Lee, J. N. Paik, "The Effect of Parents' Raising Attitude on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10, pp. 85-107, 2013.
- [13] Y. S. Han, "The Relation of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 and Child-Father Relationship, Child's Social Competence with the Yypes of Children's Pla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3, No. 2, pp. 189-212, 2006.
- [14] S. B. Campbell,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translation by Sung-Hye Min, Seoul: Sigmappre", 2007.s
- [15] Y. I. Kwon, "A study on the father's childhood experience and his parenting attitud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25-142, 2012.
- [16] S. H. Lee, I. S. Koh, J. S. Shim, "The Study of Parent's and Grand Parents' Parenting Styl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4, No. 2, pp. 111-134, 2009.
- [17] J. H. Jeon, "Influence of Parents' Family-of Origin Experience on Parenting Efficacy and Behavior-Focusing o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9.
- [18] J. M. Beaton, W. J. Doherty, M. A. Rueter, "Family of Origin Processes and Attitudes of Expectant Fathers", *Fathering*, Vol 1, No. 2, pp. 149-168, 2003.
- [19] A. J. Hovestadt, W. T. Anders on, F. A. Piercy, S. W. Cochran, & M. Fine, "A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1, No. 3, pp. 287-297, 1985.
- [20] H. M. Choi, "The Usefulness of Family-of-Origin Approach and Its Methods in Martal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1, pp. 205-237, 2010.
- [21] H. J. Jang, B. H. Cho, "The Nursing Behavior of Grandmother and Mother Transferred over each Generations, and The Grandmother's Nursing Suppor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31, pp. 269-286, 2003.
- [22] H. J. Jeon, S. Y. Park,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tal Satisfaction: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0, No. 3, pp. 153-169, 1999.
- [23] M. G. Choi, Y. H. Kim, H. S. Jeong,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al and Marital Relationship on Mother-Child Relation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3, pp.221-237, 2014.
- [24] J. H. Oh,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No. 2, pp. 509-532, 2016.
- [25] S. W. Jang, H. J. Chung, J. Y. Le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Vol. 29, No. 1, pp. 71-82, 2011.
- [26] J. H. Jeon, J. Y. Park, Y. H. Kim, Y. E. Chang, S. Y. Auh, "Influence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Parenting Behaviors : Focusing o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8, No. 2, pp. 1-15, 2010.
- [27] M. R. Chung, S. K. Kang,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Parents' Experiences in their Family-of-origin,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Expect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8, No. 2, pp. 177-202, 2013.
- [28] I. H. Choi, "Relation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family-of-origin experience of parents",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2012.
- [29] M. J. Kang, "The effects of pare 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n infant's emotional development", Master's thesis, Baichai University, 2013.
- [30] K. J. Lee, "The Impacts of Parenting Attitude and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h D. dissertation, Chonbuk University, 2011.
- [31] E. J. Choi, "The Relationship among Working Mother's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32] J. N. Paik,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453-461, 2015.
- [33] S. N. Sec, S. G. Lee, S. H. Lim,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 327-333, 2012.
- [34] C. S. Lee, C. H. Lee, "A Structural Sample of the Effects of Parent's raring attitude,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3, No. 5, pp. 27-44, 2009.
- [35] J. H. Kim, E. H.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Attitude types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3, pp. 353-363, 2017.
- [36] S. R. Ha, H. A. Seo, "Impact of the Parental Beliefs, Parental Attitude and Parental Behavior of Parents on

- the Multiple Intelligences of Preschool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 No. 5, pp. 131-156, 2013.
- [37] G. Y. Kim, H. Y. Shin,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to Paternal Parenting Behavior : Father Involvemen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 No. 2, pp. 191-213, 2013.
- [38] H. J. Kim, “The Variables Related to Fa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and Involvement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7.
- [39] J. Mercer. “Child Development: Myths and Misunderstandings. A translation by Joo-hyun Lee, Kyung-hee Chae, Selul: Myoungin”, 2010.
- [40] .M. S. Kim,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hildren’s Valu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 284, pp. 1-8, 2015.
- [41] M. R. Chung, S. K. Kang, E. J. Choi, “The Effect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on Value of Children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 2, pp. 193-215, 2013.
- [42] Y. E. Kw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lue of Children across Three generations: Comparative Analysis Adolescents, Mothers, and Grandmothers”, Ph D.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2003.
- [43] K. H. Ok, H. Y. Chun,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Infants from Different Income Groups: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anings of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3, No. 1, pp. 205-221, 2012.
- [44] S. Lee,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29, No. 1, pp.189-201, 1991.
- [45] J. S.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04.
- [46] S. H. Cho, “Inquiry into Parenting Experience Based on Bowen’s Concept of Self-Differentiation”, Ph. 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1.
- [47]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48] Y. R. Lee, “The Effects of Father’s origin of upbringing on Father-Son intimacy : Focusing on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9.
- [49] M. R. Chung, B. S. Yee, S. K. Park,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oddler’s Father Involve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7, No. 2, pp.4 49-469, 2013.
- [50] M. R. Chung, S. K. Kand, J. H. Choi,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the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Role Expect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4, pp. 245-268, 2014.

심혜숙(Sim, Hea Suk)

[정회원]



- 2008년 2월 : 강남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교육학 석사)
- 2016년 8월 : 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유아교육
- E-Mail : heasuk1024@hanmail.net

신건호(Shin, Keonho)

[종신회원]



- 1981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84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88년 8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발달, 인간관계
- E-Mail : khshin@kangnam.ac.kr